

PEOPLE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전남여성가족재단-목포보호관찰소 디지털 성범죄 예방 선도 협약

전남여성가족재단(원장 성혜란)은 20일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유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14.7% 증가한 1만30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합성·편집 피해는 전년보다 22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여성가족재단과 목포보호관찰소는 스톱킹, 교제폭력, 딥페이크 등 신종 성범죄에 특화된 교육 콘텐츠와 전문 강사를 연계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과 사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렬 기자



장성 농촌왕진버스 진원·삼계·황룡농협 등 순회

장성군 지역농협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농촌왕진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왕진버스'는 병원에 가기 어려운 농촌 주민들에게 약방, 검안 등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장성농협과 삼서농협에서 처음 시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 장성군, 농협중앙회가 함께 주최하고, 장성·진원·삼계·황룡농협이 각각 주관해 총 네 차례 운영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모든 군민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사·약사·간호사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장흥군·교육지원청·청소년수련관 아동·청소년 정책공감 워크숍

장흥군은 최근 지역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2025년 아동·청소년 정책 공감 토크'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장흥교육지원청, 장흥군청소년수련관이 함께 추진한 이번 워크숍은 지역사회 주요 기관들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참여권 보장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장흥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청소년·지도감사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의 시각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우리마을 자원 찾기(6개 분야)와 우리가 꿈꾸는 장흥군의 미래 모습 그리기, 외제 선정하기, 활동규칙 만들기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사회 주요 기관들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참여권 보장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고흥 '쑥섬 도선 2호' 관광객 태우고 '썹썹'

취항식 갖고 운항 시작...정원 14명 탑승 가능 섬 왕래 편의 제공...“고흥 관광 1000만 시대”

고흥군은 최근 나로도 선착장에서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쑥섬 도선 2호' 취항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봉래면 쑥섬(예도)은 2017년 전남도에서 '전남 제1호 민간 정원'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7~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찾아가고 싶은 33섬',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고흥 관광 1000만 시대를 이끄는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기존 쑥섬 도선 1호(정원 14명)만으로는 매년 늘어나는 탐방객을 수용하기 어려워 많은 관광객이 대기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군은 쑥섬 도선 1호에 이어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쑥섬 도선 2호를 추가로 건조해 합차게 취항했다.

이번에 취항한 쑥섬 도선 2호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8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024년 6월 건조에 들어가 9개월여 만에 취항했다.

12t급 디젤기관 320마력을 갖춘 FRP 선박으로, 바다 위 비밀정원이라는 쑥섬의 이미지에 걸맞은 디자인이 적용됐으며, 정원 14명이 탑승할 수 있다.



고흥군은 최근 나로도 선착장에서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쑥섬 도선 2호' 취항식을 가졌다.

쑥섬 도선 1호와 2호는 봉래면 나로도항과 쑥섬 구간을 왕복 운항하며, 하루 10회 정기 운항을 하고 성수기에는 수시 운항으로 관광객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쑥섬마을 도선운영위원회와 주민들은 "우리 마을의 오랜 숙원인 도선 2호가 건조돼 정말 기쁘고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관광객이 찾고 발전하는 쑥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쑥섬 도선 2호 취항을 계기로 관광객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육지로 왕래하는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며 "고흥 관광 1000만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전남대병원, 호남 최초 관상동맥 내 쇄석술 시술

전남대학교병원은 관상동맥중재시술에서 석회화 병변을 제거하는 '관상동맥 내 쇄석술(Coronary IntraVascular Lithotripsy·IVL)'을 호남 최초로 시행했다.

20일 전남대병원에서 따르면 순환기내과와 관상동맥중재시술팀(안영근·김주한·홍영준·심두선·김민철·이승현·현대웅·안준호·임용환·오석 교수)은 최근 기존 시술 방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중증 석회화 병변을 동반한 관상동맥질환 질환자 2명의 시술을 합병증 없이 성공적으로 마쳤다.

해당 시술은 '관상동맥 내 쇄석술'로, 좁아진 관상동맥 혈관을 넓히는 스텐트를 삽입하기에 앞서 석회화 정도가 심할 때 특수 카테터를 이용한 음압 펄스(Acoustic Pressure Pulse)를 방출해 병변을 분쇄하는 방식이다.



전남대학교병원은 관상동맥중재시술에서 석회화 병변을 제거하는 '관상동맥 내 쇄석술'을 호남 최초로 시행했다.

관상동맥 석회화가 심한 경우 관상동맥에 삽입된 스텐트가 잘 퍼지지 않는 결과를 일으켜 수술 후유가 좋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관상동맥 내 쇄석술로 카테터에 달린 예

너지 발생 장치에서 순간적으로 고압의 음파를 생성, 관상동맥 내 석회화 병변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 파쇄하게 된다.

특히 관상동맥 내 쇄석술은 관상동맥 석회화 병

변 치료에서 기존의 치료법인 죽종 절제술이나 고압 풍선 혈관성형술과 비교했을 때 혈관 손상과 파열 등의 부작용 발생 위험이 적으며 시술의 복잡성을 줄이고 시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관상동맥 내 쇄석술은 지난 2021년 미국 FDA에 승인을 받은 후로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신의료기술로 지난 3월31일 고시됐다.

안영근 순환기내과와 관상동맥중재시술팀 교수는 "관상동맥 내 쇄석술을 새로 도입함으로써 기존에 석회화 병변이 심한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에게 더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 남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우수사례 평가...광주·전남 유일 선정

광주 남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보건소 261곳을 대상으로 재활사업 우수사례를 평가했다. 평가 지표는 적절성과 효과성, 협력성, 노력, 건강 개선도 5가지였다.

이번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은 보건소는 전국 10곳으로, 남구는 항목별 높은 점수를 획득해 광주와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남구에서 선보인 갱년기 여성장애인 뷰티에



락 건강교실은 프로그램 추진 효과와 건강 개선 등의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둬 조만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우수사례집 책자에도 실릴 예정이다. 남구는 장애인 여성이 장애인 남성보다 우울·불안 비율이 높은 점을 참작, 지역 소재 기관인 호남대 뷰티미용학과와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청소년문화센터, 광주대 식품영양학과, 호남권역재활병원과 협력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환경공단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 획득

체계적인 재난 대응 역량 공식 인정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병수)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공단 본부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은 행정안전부가 기업 재난관리표준에 따라 재해경감 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기관 중, 재난 발생 시 핵심 기능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에 부여하는 제도이며, 이번 인증은 광주환경공단이 그간 추진해 온 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종합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공단은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위험 요소 개선, 직원의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 왔다.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인증은 공단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재해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기독병원, 구급대원 역량 강화 교육나서

광주기독병원은 최근 광주 동남권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기독병원은 광주 동남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공공의료본부의 '중증 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총 3회에 걸쳐 동구, 남구, 북구 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 1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사로는 권미정 광주기독병원 간호부 과장이 나서 '구급대원을 위한 감염관리'란 주제로 심도 있는 교육을 제공했다.

광주기독병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구급대원들이 감염 관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공공의료본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남광주시장 주먹밥 체험 행사 광주 동구 남광주 해뜨는시장(새벽시장) 상인회(회장 최재호)에서 최근 주최한 제 45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 주먹밥 체험행사서 임팩 동구청장, 상인회와 봉사자들이 주먹밥과 김치를 만들어 방문한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